

# 세계무역기구 DDA 협상 장래 불투명

**황형성**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장



작년 7월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6개국 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농산물의 관세와 농업보조금 감축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였다. 다음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는 DDA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협상은 중단되었다.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이유는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주요국들이 자기 나라에 불리한 것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국이 먼저 양보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상대국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EU가 농산물의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고,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들도 공산품의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한다면 자국의 농산물 보조금도 더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협상 중단 3개월 후인 작년 11월 16일 세계무역기구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중단되었던 DDA 협상의 모든 분야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상은 재개되었으나 회원국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협

상은 여전히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협상 분위기를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의 시동은 켜있지만 아직 기어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협상 재개 이후 회원국들은 주요국간 양자협약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이 속해있는 그룹별 내부협의를 조용히 진행하면서 상대국의 의중을 떠보는데 주력하고 있다.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 주요국 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30여 개국 통상장관들은 DDA협상의 진전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DDA 협상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가 위치해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협상 담당자들은 DDA 협상을 타결하라는 지시를 본국으로부터 받았으나,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먼저 풀어내야 하는 주요국들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DA 협상은 미국의 정치적 현안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미국 의회에 DDA 협상 등 통상현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금년 6월 30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DDA 협상이 3월말까지 완전히 종료되지 못할 경우 미국 행정부는 6월 이후부터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실효성 있는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가 상대국과 무역협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촉진권한 기한 연장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미국 의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약간의 추가조건을 부과하여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은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무역촉진권한 기한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미국의 복잡한 정치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는 일단 금년 3-4월까지 DDA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근거로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 기한 연장에 동의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달 내에 DDA 협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농업보조금을 더 많이 감축하고, EU는 농산물의 관세를 더 많이 내려야 한다. 브라질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공산품의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국가들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지난 1월 31일 2007 농업법 제안서를 내놓았다. 이 제안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농업정책의 운용방향과 농업보조금 집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EU가 다음 날인 2월 1일 미국 농업법 제안서에 대해 국내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즉각 발표하였다. 한 마디로 미국이 앞으로 DDA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EU와 브라질 및 인도 등 개도국들도 기존의 입장에서 뚜렷한 양보안을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몇 달 안에 DDA 협상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촉매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기한 연장에 실패할 경우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 DDA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